

시

파도의 감정

권라울

여름도 여름이랑 사이가 좋아야 해요

김정 씨랬죠? 김정 씨, 생각은 파도를 타죠

김정 씨가 굴러요 돌돌

몇 달 아니 몇 년 공공 밀린 연차가

달려가는 달력이 달달 시계가 흘끗

소금사막이나 빙하는 진작 품절이고

영어도 못 하고 할랄 음식도 모르면서

그저 구를 만큼 구르고 싶어서

파도와 한 몸으로 조는 붉은가슴도요

생각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만국기 휘날리는 유람선 갑판 뒤에 올라탄

먼지 낀 동네 버스처럼

차창 가까이 날아드는 불빛에

이물감으로 흔들려요

홍학의 부리나 들소 뺨의 파편

흰 산봉우리를 기어가는 설표의 꼬리뼈

가끔 캐리어 속 번뜩이는 칼날들

깊숙이 넣어둔 조약돌 몇 개

퇴근길 당신은

뜨거운 낮에 든 서늘한 목덜미에 화들짝

밤낮이 서로 먼 날이네

당신은 턱까지 지퍼를 올리고 단추를 채우며

허리 버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구겨진 잠은 주말로 접어두고

맥주 한 캔에 다시 펼쳐 보자 할 때

돌돌 툄돌 구르며 어느 선창가

후미진 호텔로 들어가는 캐리어 하나

아무 방이나 주세요

당신은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오줌내 나는 바닥으로 앉아

비로소 캐리어를 열어보려는데

수천수만 킬로미터밖에서도

꼭 다문 입술의 여권과 꺾꽂 따라온

여름 저녁이라는 감정

오로라를 보러 갈 걸 그랬지?

오로라에는 여름 감정이 없다는 듯

판전을 피우는 김정 씨

극야의 눈동자는 별의 미간만큼이나 멀어서

신은 목덜미에서 허리춤에서 자꾸 흘러내린대요

하늘이 맥없이 툄, 떨어지면

느린 목 근육을 키워야지

벽을 가로지르는 바퀴벌레의 다리 힘처럼

성경이나 코란 불경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정 씨, 소뇌 대뇌에도

운동장이 있어 지퍼를 열면 빛과 구름 바람이

우르르 쏟아진다더군요?

하늘만 한 운동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눈동자와 눈동자 사이를 줄곧

온 우주가 달려온 거라면요?

먼지 날리듯

홍학 부리가 차창에 부딪히듯

설표가 당신이 돌진해가는 거라면요?

캐리어 속에서요 무한한

김정 씨, 돌아서 어느 여름 중이신가요?

세 시에는 세 시의 눈동자가

다섯 시에는 다섯 시의 눈동자가

성운 사이 훑날리면서

시 당선 소감

응대하기 위해 경청하는 모든 김정 씨께 감사

김정 씨,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고백하자면 신문사로부터 당선 전화를 받은 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희망과 절망으로 허우적댔습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여름이었지요. 겨울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처음 만난 사이답게 적당히 즐거웠고 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화 주제는 생생한 것이었어요. 늘 그러하듯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해 내어야 하는 일을 자문해야 했어요.

내심 삶이라든가 죽음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들었어요. 우린 끝내 다정했어요. 전 구직자였고 당신은 상담사였으니까요. 혹은 저는 상담사였고 당신은 구직자였습니다.

난데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요. 사람이나 여행이나 난데없이 오니까요. 이번 일만 해도 그래



당선자 권라울

요. 대책 없어서 빛나는 누더기도 있는가 봐요.

광주일보 관계자분들과 부족한 제 시를 뽑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 선생님들과 문우들 소중한 남편에게 저의 마음을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을 응대하기 위해 타인을 경청하는, 세상의 모든 김정 씨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북 영양 출생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졸업

시 심사평

현실과 미적 균열 속 침예한 균형감각 주목

국내외로 여전히 불안정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불안’은 그 ‘갈’을 기다릴 수 있는 일시적 ‘변수’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받아들이야 할 일상의 일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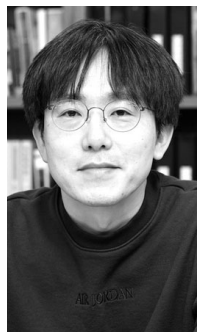
이번 응모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특히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에 대해서는, 시적 표현과 상상력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언어의 ‘전시성’을 얼마나 개성적인 설계로 구축하고 있는가를 보다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작품은 ‘파도의 감정’, ‘유령의 목록’, ‘톨립’이었다.

‘톨립’의 응모자는 그 연술 속에 유희성 짙은 특유의 리듬이 깊이 배어있었다. 그것은 단지 흥을 돋우는 운율의 층위가 아니라, 이미지의 확장으로 탐미적인 시공간을 만들어 낼 만큼의 힘이 있었다.

‘유령의 목록’의 응모자는 현실과 우화 사이 절묘한 위치에 시공간을 구축할 줄 안다. 가령 “7층과 8층 사이” 7.5층에 멈춘 승강기의 공간이다. 응모작 중에서 ‘유령의 목록’에 특히 주목했다. 섬광과 함께 남겨진 ‘빈 의자’ 위에 구르고 있는 “웬 하나”의 이미지는 쓸쓸한 삶과 죽음의 선연한 잔해였다.

당선작으로 ‘파도의 감정’을 선정했다. 시의 외관은 가벼운 톱밥 같았지만 묵직한 맛을



시인 김중일

질질 끌고 나아가는 느낌이였다. 최종심의 다른 응모자들처럼 자신만의 색깔로 시공간을 경쾌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한 가지 더 눈길어 가는 점이 있었다.

시라는 형식이 미지의 “오로라”를 향해 여행하는 듯이라면, 뜻을 올린 바로 그 자리에 현실의 “여름”을 맞처럼 깊이 내리고 있었다. 그 무겁고 차가운 맛은 현실 세계와 미적 세계 사이에 균열을 내며 박혀 있다. 그 균열 속에서의 침예한 균형감이 다른 응모자에 비해 조금 더 주목되는 점이었다. 더구나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의 맛은 다른 응모작 속에서도 “딤시크”, “산성비”,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듣는였다. 그 넓고 깊은 여행을 계속하시길 바란다.

▲동아일보 신춘문에 등단

▲현대시작품상, 신동엽문학상 등 다수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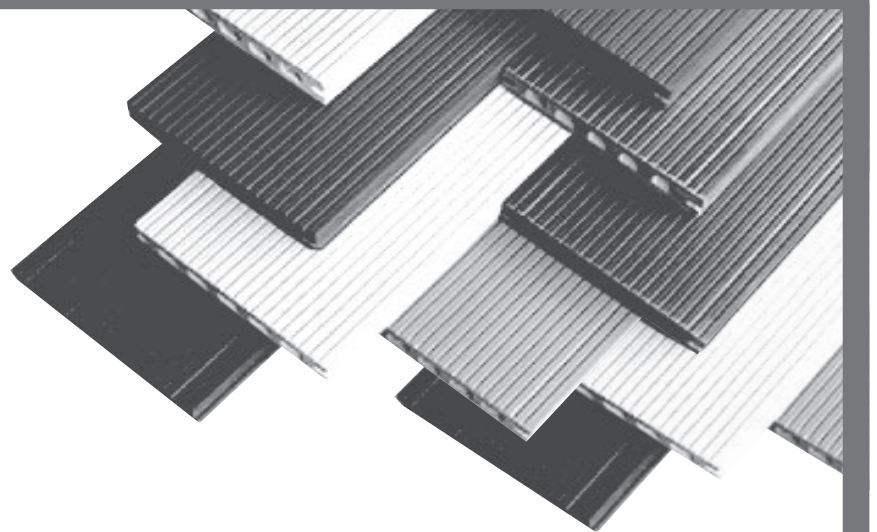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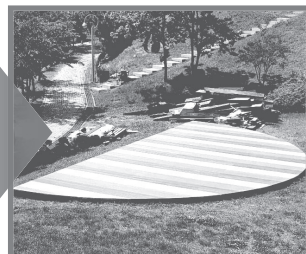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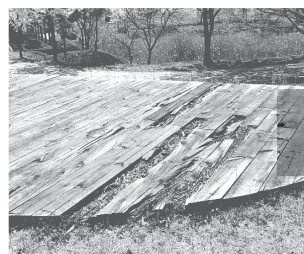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